

불자 세상보기



우희중 서울대 수학과 교수

조계종이 1월부터 매월 열고 있는 한국 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의 네 번째가 4월 27일 '생명·생태문화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열렸다.

그동안 불교는 불살생이라는 대표적 교리 속에 스스로 생명존중의 종교라는 이미지에 빠져있었다. 제대로 된 생명존중의 종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해왔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도각 스님 태고종 종정 예경실장·자연유학 박사

중국 당(唐)나라 시인 이선(李紳)은 민농(憫農)이라는 시에서 "김을 매던 중 벌써 한낮이 되고, 땀방울이 곡식 아래의 땅을 적시네. 누가 알리랴 그릇에 담긴 밥 한 알 한 알마다 농부의 수고로움이 배어 있음을(鋤禾日當午 汗滴禾下土 誰知盤中粒粒皆辛苦)"이라고 읊었다.

불광사에 주석하던 광덕 스님은 오관상염계(五觀想念偈)를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흔히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 자연의 소중함, 가족과 친지의 소중함 등 크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다. 과연 우리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3월 11일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이 일

생명존중의 구호 반복은 그만

서의 불교는 현실 사회에서 적용할 불교적 생명과 생태적 모습을 교단과 신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불교적 생명을 생각해 보자. 죽을 생명체를 살려주는 방생법회가 상징하듯 불교에서는 죽음을 피하고 살아있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불교에서의 생명 존중은 결코 죽음의 회피가 아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한 불교의 생명존중은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근대화에서 일종의 생명집착으로 변질되어 간다.

그런 면에서 방생법회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죽을 생명체를 살려준다는 표면적 의미를 초월해, 무명이란 죽음의 상태에서 놓여 있는 나와 내가 생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생명의 대자유로의 기원을 담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사회에서는 생명 집착이라는 또 하나의 끈질긴 욕망을 생명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조건 없이 정당화하고 있

다. 생명존중의 불교 역시 이런 근대적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오래 사는 생명집착이 과연 의심할 바 없는 가치인지 불교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의미한 생명 연장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생명에 대해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두개의 커다란 틀은 서양의 근대과학과 신자유주의이다.

사물의 관계를 끊고 대상을 이해하려는 근대과학의 환원론적 시각은 연기적 관계론에 근거하는 불교적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그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무한경쟁의 생산성 추구를 통해 못가진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약탈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자타불이(自他不二)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불교적 가르침과는 정반대에 위치한다.

떻게 노력해 왔는가라는 질문은 반드시 답해져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구제역 사태를 겪었다. 구제역 사태에 따른 수백만 마리의 생애장 상황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다양한 생명체의 어우러진 모습으로서의 생태는 인간위주의 시각과 가치 추구로 이미 황폐화의 길을 걷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매월 한국불교가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생명·생태를 주제로도 열렸다. 이러한 시도가 못생명의 생태적 삶의 현장을 파괴하면서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인간 중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과 생태에 대하여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몸짓이 따라야 한다.

생명·생태를 주제로 한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끝났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은 있었는지, 생명을 기계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대과학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제시는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자. 그저 식상한 피상적 생명존중의 구호 반복이나 교단만의 축제가 아니었다면 한국불교종흥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본에서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쓰나미가 일어났고, 수 만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엄청난 물질 피해가 유발됐다. 특히 쓰나미로 손상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후유증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재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나는 20여 년 전 이란의 어느 높은 산 정상부근에서 소라화석을 몇 점 채집한 적이 있다. 또 그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있는 소금산의 장엄함도 담사할 수 있었다. 그곳은 수백만 년 전에는 바다 속이었던 곳이 용기로 인해 천지개벽을 한 곳이었다.

이런 특이한 자연현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미국 오리건주 스티스산에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장의 역전현상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곳이다. 스티스산에서는 아랫부분과 중간부분 그리고 윗부분의 자극(磁極)이 각각 달리 나타난다. 이것은 자기장의 흐름이

남에서 북으로 또는 북에서 남으로 변화했을 때, 형성된 퇴적층에 나침반을 갖다 대면 각각 다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현상은 한때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예이기도 하다. 지구의 자기장 흐름방향 바뀌는 자기장 역전현상이 약 20만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 지금은 마지막 자기장의 역전현상 이후 78만년이 지났다. 이 현상이 천천히 진행되는 있지만 학자들조차 자기장의 역전현상이 어느 때 다시 급격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히 모른다.

어느 날 선사가 그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사원에 갑자기 큰불이 발생했는데, 소중한 것 세 가지만 가지고 나간다면 자네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는가?" 제자가 답했다.

"불상과 목탁 및 축원카드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제자의 답은 신앙의 대상에 예경의식을 드리고, 축원은 하겠다는 것이다. 선사는 "다시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골

라 보라"고 말했다.

제자는 이번에는 목탁과 축원카드를 선택했다. 선사는 "이번에는 하나만 골라 보라"고 말했다.

제자는 "축원카드를 가진다"고 답했다.

그러자 선사는 제자의 이타정신을 크게 칭찬했다. 선사는 "타인을 소중히 여기듯이 자신을 생각하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네의 본성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의 공포 등에 직면하게 되면 원시무의식에 당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너지가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가에 버려져 썩어지고 더럽혀진 지폐일지라도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다. '나'라는 존재도 비록 실패하고, 바닥 인생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나'의 순수한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애완건을 잃은 슬픔에 잠겨만 있을 것인가?

社說

어린이행사 맨날 뒷전이어서야

행사마다 식순에는 기관·단체장들의 인사말·격려사가 있다.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대대인을 참석시켜 대신 읽게 하는 '대독'이다. 그보다 더한 것은 '불참'이다.

제6회 찬불율동제·제23회 연꽃노래잔치 행사장이 그랬다. 총무원장·포교위원장님을 비롯해 중앙 교역직 스님은 아무도 없었다. 광고를게도 회장님조차 건강상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 '어린이가 불교의 미래다'라며 외치던 불교계 행사에는 큰스님 한 분 없었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설 해 없이 외쳐오던 불교계의 현실이였다.

이들 행사에는 매년 어린이와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방에서 새벽부터 올라와 참석하는 이들도 있다. 참석자들 모두 참가 전부터 의상·올

동·음악선곡 등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낸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들에게 실무자만 지켜보는 쓸쓸한 행사진행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그나마도 어렵게 열려오던 이들 행사는 최근 조계종의 민족문화수호운동으로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었다고 한다. 문광부에서 매년 500만원씩 지원받던 것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통에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실무자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비가 없어 행사를 쉬려던 것을 회장 스님 원력으로 겨우 개최하게 됐다. 다른스님도 모시려 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들이 참석해야 할 행사가 많아 여의치 않았다는 해명도 있었다.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이다. 언제까지 말로만 외치고 말겠는가.

발우공양 제100호점을 기다린다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제2·3호점을 건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목동 국제선센터에 개점했다.

사찰음식점 발우공양은 2009년 제1호점 개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곳의 3-5만원대 정식 메뉴를 대중이 스스로없이 접하기에는 급진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발우공양 제2호점 '뽕'은 죽을 특화했다. 점심때는 도시락도 판다. 저녁이면 찜계류 등도 취급한다. 발우공양 제3호점 '공감'은 냉면과 찜계류가 전문이다. 메뉴는 5000-9000원대 음식들로 구성했다. 발우공양의 식사 재가 모두 유기농이고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하다'는 소리까지 나올 만하다. 이만하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찾을 수 있

어 보인다. 총책임자 대안 스님은 "아침을 굶고 다니는 이들에게는 아침을 챙겨드리고..." "365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중화된 사찰음식의 새진형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기대와 바람처럼 대중성을 강화한 발우공양 제2·3호점은 컨셉을 잘 선택했다.

고가의 명품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동경을 사는 세상, 고비용이 고급화·차별화로 비추지는 요즘이다.

이런 세대에 초연하게 실속있는 메뉴, 부담없는 가격으로 대중음식의 길을 선택한 불교문화사업단의 실험에 박수를 보낸다.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제2·3점이 성공해 머지않은 장래에 제100호점 개점 소식을 듣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사총괄: 02)2004-8234-55, www.hyunbul.com. 시사총괄: 02)2004-8213-7, www.buddhanews.com. 광고총괄: 02)2004-8213-7, www.buddhapia.com. 사정총괄: 02)2004-8213-7,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지사안내: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셨고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3 Cream. Herbal Brite.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치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리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질-01-14595 어떠한 치아질환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낍니다. 이 치약은 사용후수축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면 이들의 전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금剛齋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